

# 지스트·MIT, 인공지능 공동연구 '맞손'

## 5년간 6개 연구과제 수행 등 협약 체결 김기선 총장 "노하우 공유·인재양성 기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는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이하 'MIT')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연구소(이하 'CSAIL')와 인공지능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협약을 최근 체결하고, 5년간 수행할 6개의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스트와 MIT는 인공지능 기반 공동연구 수행 및 인력교류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분야 양 기관의 연구 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연구협약 및 공동연구

과제 선정을 통해 AI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총 5년간 20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포스트닥(Post-Doc, 박사후연구원) 및 대학원생 인력교류를 통해 AI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GIST-MIT AI 국제협력사업 공동연구는 양 기관의 2-3명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AI 분야 융합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칭 방식으로 하나의 연구그룹

을 구성하고,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미 대학 간 과학기술 연구 교류 프로젝트다.

지스트는 지난 4월부터 지스트 김승준, 홍진혁, 김경중 교수와 MIT의 보이첵 매튜식, 다니엘라 리스 교수가 연구팀을 구성해 '인간중심 물리 시스템 설계를 위한 HCI + AI 융합연구(HCI + AI for Human-Centered Physical System Design)'를 주제로 연간 6억원 규모의 파일럿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스트는

MIT와 여러 협력방안에 대한 수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최종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5개의 공동연구 그룹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과제공고에는 총 27개의 프로젝트가 지원했고, 특히 MIT 측에서 지원한 과제 수는 15건으로 지스트와의 공동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추가 선정된 과제는 컴퓨터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뿐 아니라 로보틱스, 생명과학, 에너지 등 AI 기술을 이용해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연구(AI for X)도 포함됐다.

특히 MIT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스트-MIT 공동연구과제에 과제책임자로 참여해 5년간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김기선 지스트 총장은 "MIT와의 국제협력사업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한 연구 노하우 공유뿐 아니라 AI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 기관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수행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IT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연구소(CSAIL: Computer Science and Art

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는 2003년 MIT 컴퓨터과학 연구소와 인공지능연구소가 합병하면서 탄생하였으며, MIT 내 단일 연구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CSAIL의 연구자는 900여명에 달하며 컴퓨팅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 수상자를 10명이나 배출했다. 연간 연구비는 약 760억원 규모이며, Algorithms & Theory, AI & ML, Graphics & Vision 등 인공지능 분야 전반에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임채만기자

### 동신대 '예비신입생 진로탐색Day' 진로상담·일경험 프로그램 등 소개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대학 정문 앞 대정광장에서 수시 면접을 보러 온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Day를 운영했다.

동신대학교 IPP사업단, 학생상담센터, 금연사업단은 물론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예비 신입생들에게 진로상담,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또 다양한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학사생활 등을 안내하고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했다.

안민주 대학일자리센터장은 "면접 때문에 긴장한 예비 신입생들을 격려하고 대학생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역 내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전남·제주 학생·교직원, 여순 희생자 위령비 참배 제주 한림여자중학교 학생과 교사, 제주4·3유족회 대표 등 제주 방문단은 18일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여수시 만성리에 있는 여수·순천10·19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유적지를 답사하는 등 평화·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수·순천10·19 73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날 체험에는 한림여중 학생 12명과 교사, 이석문 제주교육감, 송승문 전 4·3유족회장, 김창후 전 4·3연구소장, 장석용 전남교육감 등 제주와 전남 지역 평화·인권 교류단 50여명이 참여했다.

### 시교육청, 아지트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대상...학생 중심 학교 공간 재구성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22년 학생 중심 공간혁신, 아지트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아지트 프로젝트는 '학교는 민주주의의 배움터'라는 철학에 기반해 학생 중심으로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아이들의 지혜를 모아 시도(Try)해보자'는 의미를 담아 2018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20년 아지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총 53교(초등학교 30교,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10교, 특수학교 1교)의 학생들은 공간혁신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초·중·고·특수학교 30개교의 교원 49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을 적용해 학교별 참석 인원수를 2명 이내로 제한했다. 설명회는 아지트 공간혁신, 학점제형 공간혁신, 예술교육 공간혁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 프로젝트 운영과 공모계획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고,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교육청은 학년 전체 교실 또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한 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2022년 아지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지트 공간혁신은 초등학교 3교·중학교 5교·특수학교 1교를, 학점제형 공간혁신은 고등학교 5교를, 예술교육 공간혁신은 초·중·고등학교 8교를 선정해 2022년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오는 11월 중 2022년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해 상상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학생 중심 교육공간 재구조화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임채만기자

# 광주·전남 중등교사 838명 선발

## 시 100명·도 738명 뽑아...임용 1차 시험 내달 27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2022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18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시 100명, 도 738명이다.

광주지역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진행된다. 선발 예정인원은 국어교과를 비롯한 23개 과목 100명(일반 79명, 장애구분모집 21명)으로 지난 8월 사전예고한 82명 대비 18명이 증가했다.

응시자격은 해당 선발과목 교원자격

증 소지자(2022년 2월 말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5-29일 5일 동안 광주시교육청 나이스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임용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27일 교육학(논술형)과 전공(기입형·서술형)으로 진행된다. 제2차 시험은 2022년 1월19·25·26일 실기시험, 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사전신청자에 한해 교육청이 지정하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2월31일, 최종 합격자는 2022년 2월10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임용시험 시행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시험공고'란에 안내돼 있으며, 시교육청 총무과 고시팀(062-380-4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임용시험을 통해 국어를 비롯한 28개 과목에서 총 738명(공립 618명·사립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립은 ▲중등교사 315명 ▲특수(중등)교사 38명 ▲보건교사 53명 ▲영양교사 90명 ▲사서교사 25명 ▲전문상담교사 52명 ▲장애교사 45명을 선발한다.

장애교사의 경우, 기존의 일부 과목만 선발하던 것에서 이번에는 모든 과목을 선발하는 장애구분모집 총정원제를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10월25일부터 10월29일까지 5일간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은 11월27일 실시하고, 합격자는 12월31일 발표한다. 제2차 시험의 경우 ▲실기 2022년 1월19일~20일 ▲수업실연 1월25일 ▲교직적성심층면접 1월 26일 등으로 나눠 실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10일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jne.go.kr](http://www.jne.go.kr)) '인사/채용/소식/공무원시험-중등교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채만기자

### 도교육청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각급학교 정보화기 통합유지관리 및 자원과의 산출물 등의 자료를 DB화하고, 정보보호 필수 대장 및 서식을 자동 출력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교육현장에 스마트기기 보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보화기기·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구축했으며, 공문서를 감축하고, 정보화기기 관리업무에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정보화지원센터에서 각급학교 정보시스템(컴퓨터, 무선AP 등), S/W, 공무원을 시험·중등교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에서 운영·활용함으로써 축적된 통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학교정보화지원센터는 각급학교 정보화기기·네트워크 자원을 파악·관리함으로써 기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교육지원청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식 예산과장은 "이번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는 정보 자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IT 기기·네트워크에 대한 유지관리를 신속하게 지원받아 IT기기 활용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각각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텝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듈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로 더 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중력 | LS프레임 | 세미렉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패시스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를 | 인체공학력 L 프레임 | 온열 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 기능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